

이론과 필드 동시 발전으로 국제 경쟁력 향상 기대



▲ 윤정로 대표

- 1968. 독바위 농장 대표
- 1978. 신구전문대학 축산학과
- 1985. 한국방송통신대학 농학과
- 1990. 건국대학교 농축개발대학원 졸업
- 현재 대한양계협회 이사(14~18대)
한국가금학회 부회장
닭고기수출사업단 평가위원

본고는 40여년간 양계업에 발을 담아 생산에 전념하면서 한국가금학회 종신회원으로 학계와도 연관을 맺어 산학연 공동 발전을 통해 양계산업 발전을 꿈꾸는 독바위농장 윤정로 대표를 만나 지금까지 경영해 온 양계업을 바탕으로 앞으로 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해 들어보았다.

가업으로 물려받은 축산업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에 향아리 독 같이 생긴 바위(옹암)가 있다. 그 바위 이름을 따서 동네를 독바위 마을이라 부르고, 태생이 양주인 윤정로 대표는 40년째 이곳에서 육용종계장인 독바위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윤정로 대표는 삼형제 중 막내로 공직생활을 지내신 큰 형님과 농업회사법인(주) 청미원 대표(윤동로)로 포크·양념육·냉동식품 등 생산부터 가공까지 양돈계열화 사업을 진행하는 둘째 형님, 그리고 부친으로부터 양계업을 물려받아 가업이자 천직으로 경영하는 윤정로 대표로 양주시에 서 ‘청미원 형제’라고 하면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로 축산업에 사명감과 애착을 갖고 있다. 둘째 형님인 윤동로 대표는 청정한 사육과 도축을 통해 생산된 돼지고기를 일본 수출을 통해 대통령 수출탑을 받으면서 국내 축산물의 경쟁력을 갖추고자 노력할 뿐 아니라 윤정로 대표는 독바위교회 장로로도 지내면서 덕과 인품으로 두 형제 모두 많은 이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인물이다.

산·학·연 공동 연구로 경쟁력 끌어올려야 할 것

윤정로 대표는 기독교 정신을 밑바탕으로 영농후계자 양성을 통해 농촌계몽운동에 앞장선 가나안농군학교 진학으로 1차 산업인 농축업 발전을 위해 생산자를 비롯한 학계 등 연구가 공동으로 발전해야 국제 경쟁력을 쌓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1968년부터 양계업을 시작해 산란계, 육계, 종계 등 다양하게 키워오면서 1973년 농촌진흥청에서 영농기술자격을 부여받아 양계교육을 받았고, 1990년 건대 농축대학원학위와 고대 경영과정 등을 수료하여, 농학과 경영을 병행해 이론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사양과 노하우를 필드에 접목하고자 노력하기도 했다.

40년 인생을 모두 양계산업에 몰두했지만, 꾸준히 배워야 한다며 지금도 양계관련 세미나, 강습회 등 교육을 빼놓지 않고 다니며 정보와 기술을 습득해 현장에 접목하고자 노력한다.

윤정로 대표는 사양관리는 이론과 필드가 양방향으로 동시에 이루어지기 위해 산·학·연이 일체감을 갖고 국내 양계산업 수준을 끌어올려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고 전한다. 한국가금학회 초창기 멤버이자 현재 학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학술적인 연구가 깊어져야 우리 산업이 기반을 잡고 보다 안정적으로 발전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적극적인 참여를 보이고 있다.

개방화 시대는 역수출 기회

지난해 닭고기수출사업단이 조성되면서 국내 양계산물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해 수출할로를 모색할 기회가 생겼다. 윤정로 대표는 닭고기수출사업단 평가위원으로 위촉되면서 양계산업 발전을 위해 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 “FTA 협정 등 개방화시대로 진입하면서 값싼 외국 축산물 수입에 대해 두려워 말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산물을 역수출할 좋은 기회라 생각해 국책사업으로 발전하길 바란다.”며 “글로벌시대를 맞아 자국 내에서만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위한 부분을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우리 국민은 우리가 보호하고 책임진다는 사명감 아래 농축산물 생산에 열을 다해 양계산업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각오를 갖자.”고 전했다.

국내 양계산업, 무한한 발전가능성 보여

윤정로 이사는 양계협회 이사로 현재 15년 가까이 활동하면서 협회에도 애착을 표하고 있다. 같은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모여 동질감을 갖고 양계산업 발전을 위해 함께 뭉쳐야 한다고 말한다. 한편 과거의 축산농가는 사료회사 등에서 사양프로그램을 지원받아 관리하면서 의존적인 경향이 있었지만, 근대는 농장운영에 전문성을 갖고 필드 상황뿐이 아닌, 이론적인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경영하는 농장이 많아지고 있다. 예전처럼 ‘일 그만두고 공기 좋은 시골에서 농사나 지어야지’ 라는 말은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나 했을 얘기다. 현재는 우수인력과 실력 있는 사람들이 농장을 해서 해외수출과 경영사업내용을 알려 국내 발전에 참여하고 있다.”며 “이제는 많은 우수 인력이 농장필드에 진출하면서 전문경영인이 증가해 앞으로 우리나라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보인다.”고 전했다.

(정리 | 장성영 기자, ch-spirow@hanmail.net)